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물살과 암초로 일본군을 물리친 이순신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 **목표** :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리 대비한 이순신의 지혜로움을 배운다.
• **주제** : 지혜

핵심어 지혜, 이순신, 임진왜란, 해전, 명량대첩, 울돌목, 거북선, 어부

한국문화 • **목표** :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이순신, 거북선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듣고, 반대되는 말을 익혀 표현해 본다.
• **단어** : 꼼꼼하다, 덩뵁대다
• **표현** :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해요.
 꼼꼼하지 못하고 덩뵁대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물살과 암초로 일본군을 물리친 이순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누가 떠오르는지 말해 보세요. 바다, 장군, 거북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지요. 이순신 장군은 적은 수의 군사로 지혜롭게 일본군을 물리쳤다고 해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운지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물살과 암초로 일본군을 물리친 이순신’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에 용감하고 지혜로운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은 백성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혹시 모를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리미리 대비를 했지요.

평소에도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배와 무기도 꼼꼼하게 살폈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훈련을 하지?”

“맞아. 힘들기만 한데.”

몇몇 병사들이 투덜대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우리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미리 준비해야 나라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법이야! 게으름 피우지 마라.”

그리고 이순신은 병사들보다 더욱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에 병사들은 크게 감동했어요.

“장군님을 본받아야겠어!”



이야기 들려주기

병사들도 점차 이순신의 뜻을 따라 열심히 훈련했지요.

눈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사 한 명이 황급히 뛰어와 말했어요.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본 병사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총으로 막 죽이기도 한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들은 다른 병사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아이코! 어쩌면 좋지?”

“우리는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도 없는데.”

심지어 겁을 잔뜩 먹고 안절부절못하는 병사까지 있었지요. 이순신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말했어요.

“잘 들어라!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비하며 훈련을 해왔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야기 들려주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적과 싸울지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장수들을 불러 말했지요.

“오늘 밤, 마을의 어부들을 모두 불러라. 그리고 함께 먹을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해라.”

장수들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말을 따라 어부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순신 장군은 어부들과 며칠 동안이나 함께 지냈어요. 시간이 차츰 지나자, 서로 친해지기까지 했지요. 이순신 장군은 어부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고기 잡을 때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한 어부가 머리를 찢쩍 흔들며 대답했어요

“얼마 전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물살이 얼마나 빠르던지 순식간에 휩쓸릴 뻔했어요. 그곳은 그 시간이 되면 항상 물살이 빠르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저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이순신 장군은 어부가 하는 말을 상세히 듣고 적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또 다른 어부가 말했어요.

“저도 한번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갑자기 부는지, 그 후로 그곳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간 배가 순식간에 뒤집혀요. 바로 옆에는 엄청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부딪히면 배가 바로 박살나지요.”

이순신 장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거긴 어디입니까?”

“울돌목입니다.”

어부가 대답하자 놓칠까 봐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런 장군의 모습을 보고 부하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장군님은 갑자기 왜 저러시지?”

“그러게 말이야. 며칠째 밤마다 어부들과 이야기만 하시니.”

그때 그 말을 들은 한 장수가 말했어요.

“허허, 자네들은 아직도 장군님을 모르나? 지금 일본군과 맞설 방법을 찾고 계시지 않나!”

그 말에 병사들이 피식 웃었어요.

“어부들 말을 듣는 게 방법입니까?”

그러자 그 장수가 혀를 차며 말했지요.

“만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그 누구보다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네. 어디가 물살이 빠르고 바람이 센지, 위험한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말이네.”

“이게 왜 방법입니까?”



이야기 들려주기

그 장수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장군께서는 어부들이 알려 준 곳들을 기억해 직접 가 보시고 있다네. 이것들을 이용해 일본군을 물리치려고 말이야!”

그제야 병사들은 이순신 장군의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바다로 나갔어요. 엄청난 수의 일본군들은 튼튼한 배를 타고 와 총까지 쏘아댔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과 병사들은 끄떡없었어요. 물살이 세고 바람이 부는 곳, 큰 바위가 많은 바다로 일본군을 끌어들이었어요. 일본군들의 배는 파도에 뒤집히고 힘없이 부서졌어요. 이순신 장군의 지혜로움 덕분에 적은 수의 병사로도 일본군을 거뜬히 물리치고, 길고 길었던 임진왜란도 빨리 끝나게 되었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야기에 나왔던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래요. 이순신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를 했어요. 평소에도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거북선을 만들도록 했지요. 그리고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는 장소를 고르고, 직접 가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았지요. 이런 이순신의 성격은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을 ‘꼼꼼하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침착하지 못하고 들떠서 서둘러 일하는 사람을 ‘덤벙대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꼼꼼한가요? 아니면 꼼꼼하지 못하고 덤벙대나요?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매일 밤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러 다녔나요?

그래요. 어부들이었지요. 이순신은 바다를 제일 잘 아는 어부들에게 일본군을 막을 장소를 알아냈어요. 물살이 세고 바람이 부는 곳, 큰 바위가 많은 바다를 이용해서 적은 수의 배와 병사로 많은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또 이순신은 ‘거북선’이라는 배를 만들어 적은 병사로 일본군을 이겼어요. 용감하고 지혜로운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기 위해, 전남 여수에서 ‘여수거북선축제’, 경남 통영에서 ‘통영한산대첩축제’, 전남 진도와 해남에서 ‘명량대첩축제’ 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물살과 암초로 일본군을 물리친 이순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순신은 일본군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거북선을 만들면서,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울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과 어부들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었지요.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거북선과 울돌목의 특성을 이용해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어요. 여러분도 미리 준비하는 생활 습관을 기른다면 어떤 일이든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